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칩시다

사찰재정 비공개

경기도 지역에서 포교당을 운영하는 한 스님이 전하는 사찰의 재정운영 현황. "내가 아는 한 관공서 사찰의 경우, 관공서 일부와 불전함, 불공금, 인동비, 재 등의 주요 수입원인데, 사찰의 정확한 수입 규모는 주지스님밖에 모른다. 그러다보니 포교, 교육, 사회사업은 업무도 낼 수 없다."

원시불교 시기의 삼보장제 관리의 이념적 토대는 '개인 소유의 금지와 공유재산제도'였다. 이같은 이념은 이후 불교공동체의 생산활동을 허용하기도 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삼보장제는 결코 개인의 소유로 인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유재산이라는 이념에는 변함이 없었다.

개인소유의 금지와 공유재산 제도는 당연히 재정과 관련된 것의 공개를 전제하는 것이다. 조계종의 경우, 94년 개혁종단이 들어서며 종단적 차원에서 삼보장제 관리의 이념을 사찰운영위원회라는 제도로 구체화했다. 그러나 사찰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했으나 시행하는 사찰은 몇 곳 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정은 변하고 있다. 재가신도들뿐만 아니라 스님들도 사찰재정 비공개를 불교발전의 큰 걸림돌로 지적하고 있다.

이미 공개운영하는 곳도 많다. 천태종의 경우 주지스님을 비롯한 스님들은 사찰의 전반적인 운영이나 포교, 법문, 신행상담에 전념하며, 재정관리는 전적으로 신도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신도회에서 예산안을 논의하고 의결하여 총무원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경기평양의 조계종 금강장사(주지 지홍)는 스님과 신도 15명으로 구성된 사찰운영위원회에서 재정을 비롯 사찰의 운영을 논의, 결정한다. 월별, 분기별, 연간 보고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재도가 없어서 안되는 것이 아니다. 시작만이 남았을 뿐이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opia.com)

종단 전산화사업 '열기'

조계-천태-진각-총지종 등 올 주요사업 추진

21세기를 맞이하기 위한 각 종단의 전산화 사업이 새해를 맞아 알차게 준비되고 있다. 조계종, 천태종, 진각종, 총지종 등 각 종단은 올 한해 동안 총무원장 전산화를 실현해 행정 전산화 체계를 완벽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종단 홍보에도 상당한 업무력을 모을 방침이다. 종단 차원의 전산화 작업이 정보와 사화에 긍정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행정과 포교의 현대화를 이루기 위한 기본 여건이라는 인식이 정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11월부터 불교종합정보망 달마넷을 통한 불교 정보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조계종은 올 해 5백여 전승사찰과 모법 포교당의 정보를 담은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계종은 4월경 달마넷의 공식 서비스를 개시하고, 8월경에는 총무원장 전산화 사업도 상용화 한다는 계획이다. 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오는 4월부터 전국사찰과 복지시설 정보를 담은 불교복지정보지원센터 전용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천태종도 작년 7월부터 진행해 온 인터넷 홈페이지 작업의 발위를 확대해 해와종보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총본산인 구인사와 전국의 사찰을 잇는 종무전산화 시설도 갖추게 된다. 진각종의 전산화 사업도 총무원장 전산화와 각단체 홈페이지 구축이 핵심. 진각종은 불리온의 전산실을 주축으로 종단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종단종합정보센터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종합정보센터는 인터넷과 공중전화망을 통해 종단산하기관들의 주요 행사와 신행활동 관리, 신도관리 등을 총괄하게 된다.

총지종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홈페이지 구축 사업을 마무리 짓는대로 총무원장 전산화로 관심을 옮겨 갈 것으로 보인다. 또 태고종, 관음종 등 각 종단들도 21세기를 준비하고 종단 홍보, 업무효율화 차원에서 전산화 작업을 계획한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3면> 따라서 2천년을 앞둔 올 한해는 각 종단들의 전산화 열기가 어느해보다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임연태 기자
(ylim@buddhopia.com)



"새 희망을 열겠습니다" 상지를 들고 새 집행 총무원 청사에 사과의 희망의 의지를 담은 헌수막을 걸고 종단 인정과 화합의 길 닦기에 나섰다.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 취임법회

조계종 제29대 총무원장 고산스님 취임법회가 10일 오후 2시 조계사에서 봉행됐다. 태종과 향화로 시작된 취임법회에서는 원로의장 해암스님이 법어를 했으며 종회의장 범종스님과 신낙균 문화관광공판장, 범불교연대회의 박공서 공동대표가 축사를 했다. 특히 김대중대통령도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차주신보>

이제앞서 조계사에서는 오후 1시부터 종단안정과 개혁을 위한 범불교연대회의가 개최한 '합의와 개혁, 그리고 정진을 위한 제2차 범불교대회'가 열렸다. 범불교대회에서는 참가 대종이 정회의 연비의식을 봉행하기도 했다.

임연태 기자

정화회의 의장직 벽암스님 사퇴

조계종 원로회의의 부의장 벽암스님(신원사 조실)은 정화개혁회의 의장과 구룡사 원로의 원모임에서 추대한 원로회의 의장직을 사퇴했다. 스님의 최 측근은 7일 "이미

지난 12월초 정화개혁회의 의장직 사퇴서를 냈다"고 밝히고, "54년 정화불사에 동참했던 스님은 정화개혁회의가 시작될때 종단정화에 보탬이 되고자 뜻을 내셨으나, 대립과 분규까지 가는 상황은 바라지 않았었다"면서 "종단 화합을 위해 정화개혁회의에 관여치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확인했다. 위영란 기자

조계종 138회 총회 21일부터 포교원장 선출등 13개안건 상정

조계종 제138회 임시총회가 21일부터 5일간의 회기로 열린다. 총회의장단과 각 상임분과위원장은 7일 오전 11시 연석회의를 갖고 총회 일정과 13개의 안건을 채택했다.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조계종 사태와 관련, 국민과 중도들에게 드리는 사과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또 교육원장, 포교원장, 호계원장 선출과 총무원 효법부장 임명동의도 다뤄진다. 이번 총회는 종단사태로 다투지 못한 98년 총무감사와 99년 예산승인의 건, 98년도 추경예산 승인의 건 등 다루게 되며

종립학교관리위원회 위원이 새로 선출되고 재심호계위원 부결 선출도 이뤄질 전망이다. 총회는 또 법안대책특별위원회와 해종행위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법안대책위는 선학원을 비롯한 종단내 법안들에 대한 문제점, 해종행위 조사특별위원회는 종단사태와 관련한 진상조사를 전담하게 된다. 이밖에도 종단정산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보고와 제3교구 말사 화합사 임대 진상 조사 및 해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조사 확인 등도 안건으로 상정됐다. 임연태 기자

현대불교신문 새기획-새연재

현대불교가 1999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모습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한국불교를 이끄는 울곧은 신행지 '현대불교'는 한국불교를 새롭게 세우는 지표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새 천년의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치자 50제

한국불교가 새 당간자주를 세우기 위해서는 뿌리깊은 구습을 과감히 타파해야 합니다. 고계인사 50인이 선정한 50과제를 매주 한 주제씩 지상 캠페인식으로 풀어나가겠습니다.

경전속의 禪사상

경전속에 깃든 선사상과 그 경이 지닌 핵심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禪과 教가 불이 아님을 확인 하는 기획입니다.

에드워드 콘즈의 지혜의 길

반야계 경전을 연구한 영국의 대표적인 불교학자 에드워드 콘즈의 명랑의 입이다.

2천년을 여는 불교 지상포럼

환경, 자원고갈 등 21세기 지구촌의 위기현상을 일 1회 진단하고 불교적 해법을 제시하는 대형 시리즈입니다.

기림의 장면들

'99 건축문화의 해를 맞아 전국기림에 숨어 있는 건축적 가치와 의미 그리고 그 속에 깃든 교리를 되새겨 봅니다.

절마다 도서관을 만들자

절마다 도서관이 있으면 불자들의 신행을 바르게 이끌 것입니다. '우리절에 불서 헌권 보내기'와 함께 펼칩니다.

과학산책

물리학, 의학, 생명공학, 천체 이야기 등 새로운 과학정보를 소개합니다.

선방일기

1973년 <선방일기> 논픽션 부문에 당선된 김지허스님의 <선방일기>는 동안거 선방경경을 영상처럼 보여줍니다.

명사들의 건강비결

불심이 깃든 명사들의 건강비결은 독자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귀감이 될것입니다.

제4회 신행수기 당선작 시상식

때: 1월 25일 오전11시 장소: 한아름사당(본사지하)

대출이 필요하십니까?
기존거래 없이도 빠르고 공정하게 대출해 드립니다.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화 051)633-9120~3
불교신협 부산동구 범일2동 834-20

- 희망과 화합의 종단을 이룩하기 위한 -

(봉) 대한불교 조계종 제29대 총무원장 (축) 고산 스님 취임법회

지난 시기의 갈등과 반목을 극복하고 승가화합과 종단발전을 구현시키고자 하는 원로, 대덕스님과 사부대중의 염원에 힘입어 새롭게 선출된 대한불교 조계종 제29대 총무원장 고산 스님의 취임법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무루 동참하시어 안정과 화합 그리고 지속적인 개혁의 과제들을 타개해 나가는데 사부대중의 의지와 열의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 아 래 ●

- 일 시 : 불기 2543(1999)년 1월 10일(일요일) 오후 2시
- 장 소 : 대한불교 조계종 직할교구본사 조계사

대한불교 조계종 제29대 총무원장 취임법회 준비위원회
(준비위원장 도법, 전화 02-735-5861~2, 전송 02-720-3302)